

-기에 다름 아니다

~와 다름없다, 바로 ~이다

어떤 것을 다른 것과 가장 강한 어조로 동일시합니다. 논증하는 글에서 흔히 쓰이며, -(으)ㄴ에 있어처럼 국어 문체 지침에서 논란이 되는 구문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동사	-기에 다름 아니다	포기하다 → 포기하기에 다름 아니다
명사	-에 다름 아니다	항복에 다름 아니다
명사 수식	다름 아닌	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
대안 표현	-(이)나 다름없다	포기나 다름없다
띄어쓰기	다름은 명사	다름 아니다
문체 참고	다름없다 권장	번역투로 지적됨

■ 언제 쓰나요

동사 어간에는 -기에 다름 아니다를, 명사에는 에 다름 아니다를 붙입니다: 항복에 다름 아니다. 다름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이 표현은 일종의 등식입니다. 겉으로는 한 가지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이며, 말하는 사람은 그 점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. 지금 물려서는 것은 포기하기에 다름 아니다.

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에 다름 아니다는 널리 번역투(일본어 にほかならない의 직역)로 지적되며, 문체 지침에서는 -(이)나 다름없다 또는 간단한 바로 -이다(으)로 바꿔 쓰기를 권합니다.

고유어식 대안인 -(이)나 다름없다(은/는) 같은 뜻을 나타내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: 포기나 다름없다. 직접 글을 쓸 때는 이쪽을 권합니다.

■ 예문

- 1 지금 물려서는 것은 포기하기에 다름 아니다.
- 2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항복에 다름 아니다.
- 3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방조하기에 다름 아니다.
- 4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다.
- 5 직접 만든다면서 조립만 하는 것은 눈속임이나 다름없다.
- 6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.

■ 비교

-(이)나 다름없다
자연스러운 대응 표현이며 문체 지침에서도 권하는 쪽입니다. 명사에 붙으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포기에 다름 아니다. (번역투) / 포기나 다름없다. (권장)

-(으)ㄴ/는 격이다
격이라는 비유를 통해 판단합니다. 즉 그것과 같다는 뜻입니다. 다름 아니다는 동일함을 단언합니다. 즉 바로 그것이다라는 뜻입니다.
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다. (비유) / 항복에 다름 아니다. (동일시)

-에 불과하다
불과하다는 깎아내립니다. 즉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다름 아니라는 강조합니다. 즉 바로 그것이며, 보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.
형식에 불과하다. (형식일 뿐이다) / 항복에 다름 아니다. (항복이나 마찬가지다)

■ 주의

- ✗ 그런 조건은 항복에 다름 아니다.
- 그런 조건은 항복에 다름 아니다.
다름은 명사이므로 아니다 앞에서 띄어 씁니다.
- ✗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니다 우리 자신이다.
-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.
뒤의 명사를 꾸밀 때는 다름 아닌을 씁니다.
- ✗ 그건 좋은 결과에 다름 아니다.
- 그건 좋은 결과나 다름없다.
에 다름 아니다는 번역투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긍정적인 동일시에는 다름없다가 자연스럽게 중립적입니다.